

## <2023 제주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 제8차 정기총회 >

### 1. 일시

2023년 2월 11일(토) 오후 3시

### 2. 장소

제주시소통협력센터

### 3.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현 장: 고미정, 김 선, 김순애, 김연경, 김용희, 김종욱, 김창대, 부순정, 박은서, 박진아, 선 경, 안재홍, 양인숙, 유가향, 이건웅, 이선자, 이성준, 이성홍, 이승민, 이은정, 최희정, 현성미, 호수정주, 황용운, 황현호 (25명) / (하승우 감사)
- 온라인: 오안자, 은종복, 이광민, 최성희, 황은영 (5명) / (김혜미 신임 감사)
- 위 임: 153명 \* 위임 명단은 총회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 참 관: 강민수, 양상, 정근효, 진수은 (4명)

**제주녹색당 권리당원 270명 중 참석 및 위임 총수는 183명. 과반 넘어 개회 성립**

### 4. 의장 및 서기

김순애 / 진수은

### 5. 평등문화약속문 읽기

### 6. 안전심의 및 의결

#### 안전 1. 2022년 하반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 1. 2023 총회 준비 경과보고

- 총회준비위원회 회의: 총 5회 진행(1/7, 1/17, 1/26, 1/29, 2/2)
- 정기총회 공지: 1월 27일
- 당원문자 발송 및 연락: 2월3일 ~ 2월10일
- 당원자 기준
  - ① 당원자 기준일(2023.1.29.)로부터 6개월 이내 4회 이상 당비 납부자(특별당비 포함)
  - ② 총회일(2/11)로부터 입당 6개월 경과자
  - ③ 일반당원

## 2. 2022 하반기 평가

### 1) 조직위원회 평가(자료집 5p) : 최희정 조직위원 발표

- (1) 조직위원회 구성: 김순애, 김선, 양인숙, 오명환, 최희정, 황용운
- (2) 세부 목표 및 계획 : 사업목표, 사업계획
- (3) 집행 및 성과 평가  
: 조직 운영(총 6회 회의 진행)  
: 사업 운영(신입당원 만남, 정기소모임 활성화, 당원의 날, 신입당원 교육)
- (4) 총평
- (5) 질의응답은 안건 1 전체 발표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함.

### 2) 정책위원회 평가(자료집 6p) : 이선자 정책위원장 발표

- (1) 위원회 구성: 김상애, 이선자, 김종옥, 부순정, 박현옥(8월~9월), 정재욱(10월~12월)  
※ 기존 활동 위원보다 신규 정책위원들이 많았으나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있었음
- (2) 세부 목표 및 계획 : 사업목표, 사업계획
- (3) 집행 및 성과 평가  
: 조직운영(총 9회 회의 진행)  
: 사업운영(정책 요약 보고회, 정책 세미나, 대중 강연회, 토론회, 논평 발행)
- (4) 총평
- (5) 질의응답은 안건 1 전체 발표 후 진행하는 것으로 함.

### 3) 기타 사업 평가(자료집 8p) :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 발표

- (1) 주민발의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자료집 8p~10p)
  - 가. 제안 배경
  - 나. 논의 과정
  - 다. 사업 평가
- (2) 정치학교 TF 구성 및 운영(자료집 10p)
  - 가. 사업목표
  - 나. 사업 내용
  - 다. 사업 평가
- (3) 2030 청년당원들을 만나다(자료집 11p)
  - 가. 사업목표
  - 나. 사업 내용
  - 다. 사업 평가

## 3. 2022 일상 활동 정리 평가(자료집 11p~22p) : 부순정 사무처장(공동운영위원장 겸임)

### 1) 당원 관리(자료집 11p)

- ① 제주녹색당 입, 탈당 현황: 2022년 입당 64명, 탈당 18명
- ② 2022 입당 이유 및 연령대 분석
  - 2022년은 지방선거 등의 영향으로 입당 당원 수가 많았음
  - 귀어축제 등의 행사 통해 10-20대 등의 당원 다수 가입
  - 지인 소개가 대다수

- ③ 탈당 이유
- ④ 당권자 분석
- ⑤ 평가

**2) 당원 소모임 현황(자료집 12p)**

- 현황표: 페미니즘 공부모임 올빼미, 녹록한 책읽기, 비건반찬모임, 녹색탐험대, 동카름
- 평가: 10월 중순 당원들에게 소모임 참여를 독려 문자 발송 후 참여 당원 증가

**3) 연대활동(자료집 14p~21p)**

- ① 활동내용
- ② 평가
  - 의제별 연대체가 많은 상황에서 상시적 연대체인 제주민중연대를 탈퇴하고 사안별 의제별 연대체 활동에 집중하기로 함(자료집 21p)
  - 2023 3.8여성의날 제주지역 준비모임에 간사단체로 참여(부순정, 양인숙)

**4) 논평 발간(자료집 21p~22p)**

- ① 활동: 2022년 총 30편 논평발행
- ② 평가: 2021년에 비해 제2공항 관련 논평이 줄고 다양한 분야의 논평 발행

**4. 결산보고(자료집 23p) : 양인숙 회계담당 발표**

**토론 및 의결**

- 이승민 : 민중연대 탈퇴한 것은 순전히 예산문제 때문인가?
- 부순정 : 자료집 14p 참고할 것. 민중연대가 결성은 됐으나 민중연대의 이름만 올려놓고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아 탈퇴를 결정함.
- 김순애 : 민중연대라는 연대체가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매년 민중대회 말고는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없었음.

**2022년 하반기 사업평가 및 결산보고 전원 동의로 원안 확정**

**5. 감사보고서 승인(자료집 25p) : 하승우 감사 발표**

- 녹색당의 총회 준비에 많은 당원이 참여하면 좋겠다.
- 부순정 운영위원장만 봐도 많은 역할을 수행. 사실 보편적인 상황은 아님. 부담이 클 것. 인원을 추가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현재의 위원회 체계에 대한 고민필요
- 논평을 전국당 중 많이 발행하는 편. 사실 정책적인 토대가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 정책활동과 조직활동의 연계성을 확보할 것
- 보전지역관리조례 주민발의 개정운동을 2023년에도 정치적 현안으로 만들 계획 필요
- 정책위의 예산을 조금 더 늘리고 정책역량을 적극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 원희룡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놓치지 말 것.
- 매년 얘기하지만 제주녹색당의 활동 자랑스러워하고 자부심 가졌으면. 잘 하고 있다.
- 4년간 하던 감사직을 마무리하게 되며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 감사합니다.

## 토론 및 의결

- 황용운 : 보존지역관리 조례의 경우 당 차원에서 1,300명의 서명을 받아 진행했지만 도의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됨. 감사보고서에서 이것을 앞으로 연계해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원외 정당인 녹색당이 무엇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 하승우 : 주민발의라고 하는 제도는 원외정당이니까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제대로 된 사례가 보존지역관리 조례라고 생각한다. 서명에 참여한 1,300명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이 사람들과 함께 재발의하는 것도 방법이고 기존 서명받았던 것을 기반으로 좀 더 넓혀서 진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결됐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상임위에서 부결됐다는 것은 투표도 안 하고 부결된 것. 일본 가나가와 현의 사례 참고하면 정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안재홍 당원과 유가향 당원의 제청으로 감사보고서 원안 통과됨.**

### 6. 2023 신임 감사 선출(자료집 27p) : 김혜미 신임 감사후보(중 연결)

- 김혜미 신임감사 후보의 이력
- 21대 총선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
  - 전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현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현 녹색전환연구소 운영실장
  - 현 녹색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김혜미(현 마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제주녹색당에서 추천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지만 좋은 연결이 될 수 있어 기쁘다.

**만장일치로 동의**

### 7. 운영위원 및 신임 감사 소개 영상

- 제작 : 현성미 당원

## 안건2. 2023년 사업계획(안)

### 1. 2023년 사업계획(안) (자료집 28p)

#### I. 사업목표

#### II. 사업계획

##### 1. 조직위원회 사업(자료집 28p) : 최희정 조직위원 발표

- 1) 사업목표
- 2) 사업 계획

**2. 정책위원회 사업(자료집 29p) : 이선자 정책위원장 발표**

- 1) 사업목표
- 2) 사업 계획

**3. 제주녹색당 당내 평등문화 확산(자료집 29p) : 부순정 공동운영위원장 발표**

- 1) 사업목표
- 2) 사업 계획

**4. 2023년 제주녹색당 새로운 전략사업 마련(자료집 30p) : 김순애 공동운영위원장 발표**

- 1) 사업목표
  - 총준위에서 논의한 사항
  - 녹색당이 실천 가능한 정책 사업을 실현하는 모습들을 시민들에게도 인식시키는 것.

2) 사업계획

제안1. 무상버스 공약의 1단계 실현으로 만 19세 미만까지 무상버스

제안2. 노후건축 그린리모델링 사업 확대

- 현재 제주도는 사업 시행하겠다고 했으나 모니터링이 되는지 여부 알 수 없음.

제안3. 주민참여결산투표제 도입

제안4. 차 없는 등학교길 조성

**5. 녹색정치학교(자료집 32p) : 강민수 운영위원 발표**

- 현재 TF팀 구성 완료: 부순정, 강민수, 이건웅, 호수 당원 참여 예정)

- 1) 사업목표
- 2) 사업 계획

## 토론 및 의결

- 황용운 : 좋은 사업이지만 당원들의 참여가 필요. 어떻게 당원 참여 확대할 것인지.
- 김순애 : 현재 안건4 빼고 TF팀이 모두 꾸러진 상태. 2-3명의 당원이 모든 사업에 참여하면 좋을 것.
- 이승민 : 면허가 없어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하고 있음. 버스를 타면서 요금이 비싸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음. 버스를 타면서 불편했던 것은 이런 것. 버스를 타는 사람은 낮은 계층의 시민이라는 느낌을 줌. 버스를 타면 2-3 정거장마다 계도 방송이 나온다. 녹색당에서는 대중교통인 버스에 대한 요소들이 잘 파악이 됐는지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선행된 것인지 궁금하다. 실제로 버스를 잘 이용하시는지도 궁금하다. 어떤 지점 때문에 버스를 사람들이 잘 안 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김순애 : 버스는 제주에서 불편한 대중교통. 자동차가 훨씬 편한 교통수단이다. 요금은 쉽게 접근하기 위한 것. 노선이나 도로 등은 정책으로 던지기는 쉽지만 현실화시키는 어려운 주제. 그래서 요금 부분으로 접근했던 부분도 있음.
  - 호수정주 : 이 사업을 계획하려면 여러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만 19세 미만이라는 것이 걸린다. 경제적 취약층이기도 하고 복지 차원에서 이 나이층이 지원을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연령층은 선거권을 갖고 투표권을 갖는 층이 아니다. 나이에 대한 부분을 만 19세로 제한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복지 혜택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더 넓혀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제주도민들이 무상으로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유가향 : 만 19세까지 무상인데 왜 만 19세 미만으로 설정한 것인가. 경제적 능력 때문인가 버스를 타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 저는 제주 온지 8년이 넘었고 20대부터 30대까지 계속 버스를 이용했고, 앞으로도 버스를 이용할 것이다. 제주에서 버스는 정말 불편한 교통체계가 맞다. 만 19세 미만을 무상버스 대상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하승우 : 만 19세 법이 화성시에서 처음 법제로 락은 것으로 알고 있다. 만 19세는 청소년 통학, 학부모에게 호소하는 정책으로 보여진다. 또한 면허 없는 층. 이들이 대중교통으로 다니는 것이 설정이 되어 앞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 그러나 현재 서울에서 교통요금 인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화성의 정책도 바뀌지 않을까. 제주는 다른 지역의 선례를 보고 선택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정책들이 변화할지 모르는 부분. 서울은 공영제 부분의 싸움으로 가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올해부터는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 제주도 준공영제인데 하나도 준공영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 요금에 대한 문제보다 공공성의 문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황현호 : 저도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이나 걸어서 다닌다. 육지에 살 때는 지하철이나 도시철도 등 기타 철도를 이용해서 혜택도 받았다. 제주도 오니까 철도가 없었다. 어떻게 보면 차별 받고 있는 것 같다. 제주도는 도시와 같은 교통 환경을 반영하고 제도를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어제 제주 시내에 행사가 있어 회의 끝나고 밥 먹고 했는데 9시 35분이 서귀포 가는 막차이다. 중간에 뭘 못 한다. 중간기착점을 뒤편 10시나 11시 정도에 두면 훨씬 버스 다니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시간대나 이런 것들... 제주 터미널에서 출발하면 서귀포까지 3시간 걸린다고 한다. 중간에 기착점을 만들면 배차시간도 늘리고 버스 시간도 늘어나지 않을까. 우선 공공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튼 불평등을 받고 있다.

- 김종옥 : 무상버스는 현재 도에서 매스컴에 발표했다. 읍면지역 아이들은 2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한다. 그럼 중첩되지 않을까. 연구가 더 필요하다.

또한 기타 안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관련해서 연대해서 대규모 집회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지역관리조례는 끝까지 밀고 갔으면 좋겠다. 이번 도의회에 상정을 못한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좀 바뀌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전략사업으로 주민지역관리조례를 연속해서 가기를 제안한다.

- 김순애 : 후쿠시마 관련한 사안은 우리가 연대단체로 있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서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3.11 행동 등도 계획 중.

현재 안전에 대한 얘기들 중 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음. 더 의견 받고 어떤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할지 논의가 필요.

- 이선자 : 내용에 대한 의견보다 방법에 대한 의견 필요. 토론회할 때도 10명 남짓 얘기하고... 송악산 토론회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한 것을 보고 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 녹색당 만의 힘으로 돌파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다. 제안 3의 경우 무상 버스 사업 보다는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다. 그럴수록 더 뾰족해야 하다. 우리의 힘만으로 뾰족하게 잘하는 것이 방법적으로 어렵다면 같이 할 파트너들(연대단체 등)과 함께 하는 것이 일이 (실현화) 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김순애 : 가능하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화 하는 것이 필요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그런 사업들을 찾는 것이 필요. 다른 연대단체들과 잘 협력되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다.

- 이성홍 :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단위의 실천사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주민참여연대 등에서도 할 수 있다. 이 사업들이 안 좋다는 것은 아니다. 지난번 비자림로나 주민 조례 개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졌는지 알고 싶다. 조직위, 정책위... 지금 태평성대가 아니지 않나. 정당에서 할 일이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 모임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연대 사업을 통해 최대한 판을 크게 벌이고 조직적 동력을 키워내는 것. 특히나 소수, 진보정당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조직위나 정책위의 사업을 편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너무 안일하고 평온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과는 조금 동떨어진 느낌이 든다.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필요하다.

- 김순애 : 그동안 제녹당이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돌보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일상을 돌보고 당원들을 돌보며 힘을 모으는 시간이 필요. 이것에 대한 의견 듣고 싶다.

- 안재홍 : 지난 해 사업 평가를 보니 예산 대비 너무 많은 사업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걱정됐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 저도 당원으로서 지켜보며 뿌듯하다는 말 하고 싶다. 제2공항은 이번에 3월에 동의나 조건부 동의가 될 것 같다. 제2공항은 정치적인 힘을 받아서 가는 사업이다. 제2공항 국면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동의가 되고 그것만 막아야 한다는 것이 7-8년인데 그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 제주도지사가 취하는 행동 역시도 ... 안팎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당원들이 얘기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또한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업 중 제주의 앞날을 바꿀 사업이 많고 녹색당이 어떤 스탠스를 갖고 갈지 궁금하다. 이런 모든 부분에 녹색당이 답을 가지고 갈 수 없고 응답도 할 수 없다. 교통문제 하나만 예를 들면 무상버스나 공공성 강화에 대한 부분도 녹색당이 계속 논의하며 답을 가져가면 좋겠다. 오늘 많은 당원들이 관심을 보임. 이 부분을 계속 논의하고 외부의 전문가를 부르는 등을 통해 올 한 해 계속 가지고 갈 수 있음 좋겠다. 도민들의 일상에 가는 사업은 정책위가 사업을 만드는 것보다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김순애 : 핵오염수나 제2공항, 핵오염수는 연대로 참여했고 제2공항은 천막 당사 등을 통해 격렬하게 참여했으나 현재는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 않은 상황. 이성홍, 안재홍 당원이 이러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가져가자는 의견. 다른 당원들의 의견도 궁금하다.

박은서 : 육지에 있다 보니 제주녹색당이 얼마나 멋진 당인지 알게 되었다. 제주녹색당은 정치도, 투쟁도 너무 열심히 했다. 그것이 저에게는 계속 힘이 된다. 3월 6일이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곧 닥친다... 오늘 총회를 보더라도 전략사업이 대중사업이

다. 다음 선거를 바라보며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이 필요하지만 정치와 투쟁이 따로 있지 않다. 싸움만을 위한 싸움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도민회의 등 과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함께할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 않는가. 제주에서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고 진행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호수정주 : 많은 고민이 담긴 정책들. 소수의 활동당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열심히 투쟁하며 돌보려고 하는 것이 보인다. 중요한 사안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일을 하고 있는 활동당원들을 돌보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예산안을 처음 봤는데 활동비를 받지 않고 자원으로 정당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소수의 당원이 받고는 있지만 굉장히 적은 돈으로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제주녹색당이 시민들이 꾸려가는 당이지만 너무나 적은 돈으로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소진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부순정 : 자료집에 페이지 넘버가 오차가 났다... 아무튼 총회를 준비하며 부담감이 컸다. 제2공항 등의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가지는 힘은 그동안 투쟁하며 싸우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느꼈다. 핵심 인원이 계속해서 많은 일을 하는데 다른 당원들과의 거리감이 생김. 몇몇의 희생으로 당이 운영되어야 하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피켓들고 싸우고 이것이 일상인 사람이다. 지금 제주녹색당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고민스럽다. 지금 당장 일요일에 제2공항 연석회의가 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당원들과 멀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 있다. 고민이 된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제주시민사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다. 오늘 이 총회에서 이 전략사업을 만들어낼 수 있겠나 하는 것에 대해선 그것을 선택하고 싶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

- 선경 : 녹색당의 정책들을 볼 때 느끼는 점. 녹색당의 정책을 보면서 항상 파편적인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녹색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상이 그려지지 않는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연결지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정책들도 녹색당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잘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전략적으로 효용을 갖고 의미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제2공항에 대한 정책을 한다고 일상적인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일상적이고 다른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곧 제2공항 반대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다.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디테일이 필요하다. 그리고 큰 이야기와 일상적인 이야기가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고민이 필요하다.

- 하승우 : 구분이 될 필요가 있다. 전략사업이라는 것은 전략이 목표가 있다. 지금은 전략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후쿠시마는 국가의 문제. 전국당이 역할을 맡는 것이 좋겠다. 제2공항은 녹색당이 개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 연대체에서 논의를 할 것이 아닌가. 일단 연대회의 갔다와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제녹당을 보면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것도 필요하지만 당원들의 마음을 선불리 판단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의견을 잘 수렴하고 전략적으로 당원들과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저는 정당내에서 갈등이 있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활동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익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들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눠서 생각하고 나눠서 이야기 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순애 : 핵오염수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 제2공항은 비상도민회의와 연대하여 함께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2공항, 천막당사 정말 오래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게 생각하면 막막. 보존지역관리조례의 경우 제2공항 반대 프레임에 갇혀 논의가 더 확산되지 못했다. 환경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고 비상도민회의에 나온 주민투표 이야기에 어떻게 동력을 모을 것인지 고민이 필요. 지금 우리 운영위원들이 환경부 앞에서 천막치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제녹당에게 주어진 이미지는 뭔가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부족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우리도 하면서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당이라는 이미지가 약하다. 구호를 외치는 당이 아니냐는 이미지. 실질적으로 정당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 해낸다는 것이 보여져야 함. 우리가 대안세력으로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인들이 녹색당 안에서 이뤄지는 시작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거치며 그런 고민들이 더해졌다.

- 강민수 : 오늘 성홍님이나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전략사업에 대해서 다른 시야를 갖고 계신 것 같다. 논의가 힘들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전체집합 중에 우리가 부분집합인지, 여집합인지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고 설명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

## 전략사업의 방향을 제2공항 등 현안에 집중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 수정안 문구 정리 후 표결 진행

### 1안) 원 계획안대로 전략사업 추진

### 2안) 제2공항, 핵오염수 등 시급한 현안 중심으로 전략사업 추진

- 현성미 : 2안에 찬성했다. 이제 제2공항 싸움이 시급해질 것. 1안이 되도 제2공항 싸움은 하게 될 것 아닌가.
- 이승민 : 1안은 아직 미완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 1안이 완성되면 그 때 표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계속 해온 활동당원들이 번아웃이 왔다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 왜 나도 그동안 일상에서 녹색당의 연락을 피했는지 고민이 필요.
- 김순애 : 1안을 선택한 당원들이 논의를 하고 완성된 방안이 되는 것에도 표결했다고 생각.

## 표결 결과 1안 9명, 2안 14명

김순애 : 차후 운영위를 통해 안전을 보강하고, 보존지역관리조례 안전도 보강할 수 있을 것.  
2월 27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 당원들이 참관해서 의견 내면 좋겠다.

**2월27일 확대 운영위 통해 추가 논의 후 안전 보강하기로 함.**

**최희정 당원의 찬성과 김선 당원의 제청으로 승인됨.**

### 안건 3. 2023년 예산(안)

2023년 수입, 지출 (자료집 33p) : 회계담당 양인숙 운영위원 발표

1. 수입
2. 지출

#### 토론 및 의결

- 이승민 : 운영위원장 인건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했으면 좋겠다.
- 김순애 : 예비비를 이용해야 할 것인가.
- 김선 : 후원주점 수익을 이용하는 것은 어떤가.
- 고미정 : 여비 부분, 작년 지출에서 예산안 초과됐는데 왜 올해도 동일하게 잡았는가.
- 양인숙 : 전국당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어서 동일하게 잡았다.
- 김순애 : 그러면 수입 지출 증액하는 것 동의하는지.
- 일동 : 동의합니다.
- 박은서 : 세종에서 기후행동 분담비 내야합니다. 추가 해주시면 좋겠다.
- 김순애 : 그러면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사실 인건비 늘리는 것 감사하지만 조금 부담스럽다.
- 양인숙 : 통과되면 우리는 후원주점에서 700만원 매출내야 한다.
- 김순애 : 수입과 지출에서 290만원 상향하는 것을 찬성하는지?  
(찬성합니다)

**인건비 및 분담금 증액해 전체 예결산 290만원 상향 조정  
유가향 당원 찬성, 황현호 당원 제청으로 통과되었음.**

이로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